

## 재무부, 부채한도 특별 조치 시행



▲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사진=shutterstock

미 재무부가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19일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일단 오는 6월 초까지 시간을 벌게 됐지만,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이 합의에 도달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은 특별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터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올해부터 2024년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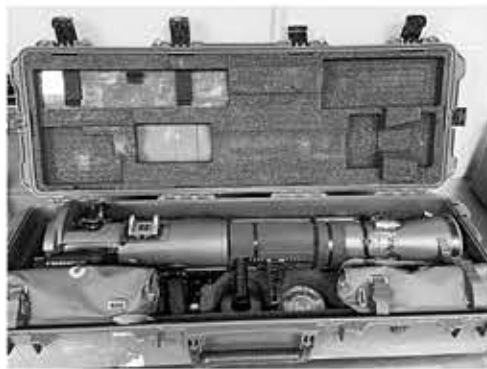
백악관은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해 공화당과 협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3,810억 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 공항서 압수된 총기 사상 최다... 대전차 화기도

미국내 260개 공항에서 지난해 압수된 총기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7일 '더힐'에 따르면 지난해 260개 공항의 교통안전청(TSA) 보안검색대에서 모두 6천542정의 총기가 압수됐다. 이는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직전 해보다 570정이 늘어난 것이다.



▲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서 압수된 대전차 소총. 사진=twitter(TSA) 캡처

TSA는 총기들은 대부분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 주의 공항에서 발견됐고 88%는 장전이 돼 있었다며 이런 총기들은 땅콩버터 속이나 생닭 속 등에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TSA는 이날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서 장전되지 않은 휴대용 대전차 소총을 발견, 압수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총기가 압수된 공항은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448정이 압수됐으며, 델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385정),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298정), 내슈빌 국제공항(213정), 피닉스 스카이 허브 국제공항(196정) 등이 뒤를 이었다.

TSA에 따르면 사전 신고 절차를 거친 무기는 장전하지 않고 잠금장치가 있는 상자에 포장해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있으나 기내 반입은 총기 휴대 허가가 있는 사람에게도 엄격히 금지된다. TSA는 승객의 휴대 수하물에서 총기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현지 공항 경찰에 통보하고, 무기 소지자에게 경우에 따라 형사소환에 더해 위반 건당 최고 1만4천9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민사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 킹 목사 추모 조형물 외설 논란

미국의 인권지도자인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대형 조형물이 외설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CNN에 따르면 보스턴에서 지난 10일 공개된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조형물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킹 목사의 유족까지 비판에 나섰다.

공개된 청동 조형물 '포옹'은 6.71m 높이로 제작비 1,0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작가 헝크 윌리스 토머스는 1964년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직후 부인 코레타 킹 여사와 포옹하는 장면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킹 목사 부부의 모습에서 몸통과 머리 부



▲ 보스턴 공원에 설치된 마틴 루서 킹 부부 추모 조형물 '포옹'. 사진=AP연합뉴스

분 등이 제외되고 손과 팔 부분만 묘사됐다는 것이다. 특히 조형물 공개 이후 SNS에서는 특정 각도에서 보면 음란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조롱성 글도 전파되고 있다. 이에 코레타 킹 여사의 조카 세네카 스콧은 "이 조형물은 우리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토머스는 "이 조형물은 단순히 킹 목사 부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상징하기 위한 작품"이라며 작품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킹 목사의 장남 역시 "부모님의 모습을 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며 작가를 지지했다.

	1번	2형	광	3등		
4성	호	사	설	5사	6골	
리		7지	론		다	
8학	9우	공		10허	공	
	11범	벽	12봉		13증	14정
	지		15한	우		강
	16대	17기		18유	일	19무
		20고	무	신		게

5	6		4		9		
					1	4	8
			6	2			5
3	7			9			1
		1	5				2
	2				4		3
6	5					2	
		3		4		7	5
4		7		1			9